

길잡이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1806 년경 이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역로를 따라 위치해 있어 여행자들은 이정표로 이용하였고, 또 무사히 여행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른쪽 길은 도쿄 방면으로, 왼쪽 길은 산으로 이어집니다. 각인에는 ‘오른쪽은 에도(현재 도쿄)’, ‘왼쪽은 산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지장보살과 여행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지금도 걷거나 하이킹 루트의 이정표, 경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를 지키고 행인에게 행운을 가져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9 세기 초에 나가오카를 방문한 많은 유명 인사들은 여행 중에 길잡이 지장보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셋타야 지구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고 길을 안내합니다.